

**통산부, 현대기술개발
등의 항공기 생산사업
신고 수리해**

통상산업부가 현대기술개발(주)과 서울차륜공업(주)에서 신청한 항공기 및 부품 생산사업(변경)신고를 지난 10월 11일자로 수리했다.

현대기술개발은 그간 BK117 헬기 기술도입생산 및 KFP, KTX-1 등 군 항공기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, 소형 및 대형 고정익 항공기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B747, B727 및 DC-10 등 소·대형 고정익 항공기의 개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. 동사는 이미 소형회전익 항공기 생산사업 등 7개 부문에 사업신고를 필한 바 있으며, 이번에 2개 부문을 포함, 총 9개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.

서울차륜은 자동차용 Wheel류를 생산해 온 전문업체로 중형항공기 사업에도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으며, 항공기용 기계보기류 생산사업 신고를 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항공산업에 신규 참여하게 됐다.

한편 통산부는 항공기·우주

비행체·기기류 및 소재류를 제조(가공 및 조립 포함) 또는 재생(개조 및 수리 포함)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동사업에 대한 생산사업신고를 필하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다. 이번 신고수리에 따라 동법에 의한 신고사업체는 총 47개 업체로 늘어났다.

**通産部, 中型航空機 및
多目的 實用衛星 개발
사업 2次年度 協約 체결**

통상산업부와 항공우주연구소는 국책사업인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제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각각 9월 30일(土)과 9월 26일(火) 체결했다.

동 협약에 따르면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제2차년도(95. 9. 1~96. 4. 30) 총사업비는 34,500백만원이며, 이 중 개발사업비(시제 개발비)는 31,000백만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%씩 부담하게 된다. 3,500백만원은 설계검증, 품질인증 및 사업관리를 위해 KARI가 집행하게 된다.

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제2차년도(95. 9. 1~96. 6. 30) 총

사업비는 23,300백만원이며, 이중 정부가 19,900백만원, 참여기업이 3,400백만원을 부담한다.

**중형항공기 개발사업
관련법령집 발간**

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용요령,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및 관련서식을 묶어 '중형항공기 개발사업관련 법령집'을 발간, 배포했다.

총 105Page 분량의 동 법령집은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연구수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자 발간한 것이다.

내용문의 :

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 항공우주공업과(500-2497)

한국항공우주연구소 연구협력과(042-860-2120)

정기구독안내

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.

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. 1년간 구독료는 12,000원입니다.

(전화: 761-1101, 담당 남주현
FAX: 761-1175)